

GE의 추락과 소니(SONY)의 부활



▲ /삽화=양만금 화백

[전광우·손현덕 통쾌한 경제-45] 미국 제조업의 상징 GE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25년 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로 세계 최대기업 지위를 누렸던 GE가 날개 없이 추락하면서 최근 주가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지요. 지난주 시가총액이 1550억 달러(약 170조원)로 떨어져 37년 만에 미국 전통제조업계 1위 자리를 보잉(1560억 달러)에게 넘겨줬습니다. 뒤늦게 발표된 사업조정 플랜도 투자자에게 확신을 못주면서 금년들어 주가는 거의 반 토막 났습니다. 뉴욕증시가 사상최고치를 쓰고 있는 가운데 GE는 거꾸로 간 샘입니다. 2000년대 초까지 시가총액 세계1위 회사였던 GE의 기업가치는 현재 1위인 애플의 1/6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006년 7월11일자 미국경제지 포춘(Fortune)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랫동안 '경영의 신(神)'으로 불렸던 전 회장 '잭 웰치의 경영 교본을 찢어버려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맞아 과거 웰치식 아날로그 경영기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신시대 경영모델은 애플이나 구글'이라는 당시로선 파격적인 주장을 폈는데요. 산업지형도를 바꾸고 '스마트 경제'시대를 연 애플의 아이폰이 첫 선을 보이기 1년전 일입니다. 낡은 경영방식을 떠나 새롭게 추구해야할 구체적 경영지표를 제시하기도 했지요. "큰 덩치 보다 유연한 조직으로 바꾸라" "기존 시장에서 1, 2등을 목표하기보다 신규 분야에서 니치(Niche)시장을 개발하라" "탁월한 인재보다 열정을 가진 인재를 중용하라"등 7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잭 웰치 신화는 그가 회장으로 재임하던 1981-2001년 기간 중 GE 시가총액이 근40배 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GE식 경영철학의 메신저이자 세계적 인재사관학교로 불린 뉴욕 근교 크로톤빌에 위치한 리더십개발센터는 한동안 CEO들의 성지(聖地)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GE의 몰락은 2000년대 들어 산업 환경의 혁명기에 ‘과감한 변화와 혁신적 리더십의 실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잘나갈 때 혁신을 못한 탓이란 얘기죠.

반면, 한동안 쓰러져가던 일본 소니가 되살아난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를 접목한 신사업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겠다는 경영계획이 이달 초 발표되면서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며 근10년만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니가 전자제품의 대명사였던 지난날 영광을 되찾을 재도약의 발판을 굳히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과거 무리한 사업 확장과 포트폴리오 조정 실패라는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선택과 집중으로 반전을 이룬 셈입니다. 물론 거시적 측면에서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담은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기업경쟁력이 살아난 배경도 일조했습니다.

소니의 부활과 GE의 추락이 주는 시사점은 뭔가요. 변화의 시대에 기업의 성패는 선제적 혁신 여부에 달려있고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만이 결국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생애주기이론(Life Cycle Theory)이라는 본래 마케팅 분야에서 개발된 학설이 있습니다. 대체로 상품은 태생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진화한다는 뜻이죠. 성숙 단계를 지나 소멸되지 않으려면 혁신적 리셋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기업이나 국가의 경우에도 적용될 애깁니다. 아무리 일류 기업이나 국가라도 흥망성쇠의 운명이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란 역사적 변곡점을 맞은 오늘날 더더욱 그렇지요.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요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건 그래서 당연하고 다행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단기적 경기개선에 대한 착시현상을 극복하고 세계경제 회복기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는 경고도 되새겨야 할듯합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국민연금이사장]